"새만금 예산 삭감, 정치보복성 삭감"

민주 이원택 의원, 국회 예결특위원회 회의서 "기본계획 변경 예산 목적은 차질없는 개발 예산 반드시 복원해야"

'새만금 예산 정상화 염원' 전북도와 전북연구원이 6일 그랜드힐스턴 호텔에서 '2023년 제2차 새만금 정책포럼'을 개최한 가운데, 행사 참석자 전원이 함께 하는 새만금 발전과 성장을 기원하고 새만금 예산 정상화의 염원을 담은 세레머니를 하고 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의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새만금 SOC 예산 삭감은 정치보복성 예산삭감임이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김제·부안)은 6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새만금 잼버리 파행에 대한 책임을 전북탓, 새만금탓, 전정권탓으로 돌리기 위해 새만금 예산 삭감을 기재부 심의 막바지에 관련 부처와 협의도 없이 일괄 삭감했다"며 "그 결과 새만금 주요 SOC 사업(새만금 신공항 등 10 개 사업) 예산이 부처 요구액 6,626억 대비 78% 삭감된 1,479억만 반영됐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한덕수 총리는 지난 3월 6일 개최된 제29차 새만금위원회에서 "새만금 개발을 가속화 하겠다. 공항, 철도, 항만 개발에도 박차를 가해 새만금 개발의 모멘텀을 만들겠다"고 약속했고, 윤석열 대통령도 8월 2일 새만금 이차전지투자협약식에서 "대한민국의 미래가 새만금에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개발 속도"라고 발언 하는 등 새만금 잼버리가 파행을 겪기 전까지 윤석열 정부는 속도감있는 새만금 개발을 강조해 왔고, 실제로 기재부 심의 과정에서도 새만금 사업은 문제 사업으로 분류되지 않았다.

그러나 새만금 잼버리가 파행을 겪으며 국민의힘 주요 인사들은 잼버리 파행의 책임을 전북탓, 새만금탓, 전정부 탓으로 돌리는 발언을 쏟아냈고, 특히 국민의힘 예결위 간사인 송언석 의원은 전북이 잼버리를 핑계로 새만금 SOC 예산을 빼먹고 있다고 비판하기 시작하며 새만금 사업 예산은 기재부 심의 마지막 단계에서 삭감됐다.

특히, 내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타 지역의 공항, 철도, 고속도로, 항만 등의 사업과 비교해보면 새만금 사업 예산이 얼마나 비정상적으로 삭감됐는지 확연히 드러난다.

먼저 공항 건설 사업은 대구경북신공항건설 사업 100억, 가덕도신공항건설 사업 5,363억, 예타를 통과하지 못한 서산공항은 10억원 등 모든 사업들이 정부요구안의 100%가 반영됐는데 새만금신공항은 무려 89%가 삭감됐다.

고속도로 사업 역시 함양~울산 고속도로 2,418억, 포항~영덕 고속도로 952 억 등 모든 사업들이 정부 요구안의 100% 가 반영됐는데, 새만금~전주 고속도로는 72%가 삭감됐다.

철도 사업도 내년도 대구산업선 철도건설 2,419억 등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41 개 사업이 모두 100% 반영됐는데 새만금항 인입철도는 계속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예산안에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다.

이외에도 계속사업인 새만금지구 내부개발 예산 75%, 지능형 농기계 실증단지 예산 100%, 새만금 수목원 예산 72%, 새만금 스마트팜 온실단지 조성 예산 100%, 새만금 산단 미래성장센터 건립 예산 100%, 새만금 투자유치 지원 예산 66%, 새만금 산업단지 임대용지 조성 예산 100%가 각각 삭감됐다.

특히, 지난 2013년 박근혜 정부에서 새만금 개발 추진을 위해 설립한 새만금개발청의 새만금개발 사업지원도 부처 요구액의 54%가 삭감됐다.

이는 전례 없는 큰 폭의 예산 삭감으로 새만금 개발청 개청 이후 가장 큰 삭감이다.

또한, 이원택 의원은 한덕수 총리가 새만금 예산 삭감의 이유로 주장하는 '새만금 빅픽처'도 실제로는 새만금 예산 삭감에 대한 명분 쌓기용, 여론 무마용이라 지적했다.

이 의원은 "내년도 새만금개발청 사업으로 반영돼 있는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의 사업목적은 차질없는 새만금 개발사업 추진을 통해 대규모 기업 투자 지속 유치 및 개발사업 적기 추진의 효과를 내기 위한 것이라고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새만금개발청 사업설명자료에 적시되어 있다"고 밝히며, "과거 정부에서 새만금 기본계획이 변경되었을 때 새만금 예산은 오히려 증액되었지 기본계획 변경 때문에 삭감된 적은 단 한번도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토부가 추진하고 있는 '새만금 SOC 사업 적정성 검토 연구'도 국토부가 과업지시서를 통해 새만금 국제공항, 새만금 인입철도, 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를 중점적으로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의원은 이 3가지 사업은 이미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 기재부와 KDI 의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및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치며 사업의 적정성과 경제성, 효율성이 입증된 사업들임에도 이 사업에 대한 적정성 점검을 하는 것은 전례없는 직권남용이며, 혈세낭비이자 문재인 정부에서 시작했던 사업들을 흠집내고 예타와 사타를 무력화 시키기 위한 정치보복이라고 주장했다.

이원택 의원은 "새만금 SOC 예산 삭감은 잼버리 파행의 책임을 전북탓, 새만금탓, 전정부탓으로 돌리려는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합작한 정치보복성 예산 삭감임이 그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며, "새만금 예산 삭감이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합작한 정치보복성 예산 삭감이 아니라면 새만금 개발 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새만금 예산을 반드시 복원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내년 정부 예산안 심사 키워드 민생·지역·미래"

민주 김성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인 김성주 의원(전주 병)은 6일 민주당 2024년 정부예산안 심사방향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정부예산 심사의 키워드로 민생·지역·미래를 제시했다.

김성주 의원의 사회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은 60조에 달하는 세수결손에도 불구하고 긴축재정을 고수하며 R&D 예산과 새만금 사업 등 국가의 미래가 달린 예산을 대폭 삭감한 윤석열 정부 예산안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새만금 사업 △연구개발 △재생에너지 △보육지원 △미래세대 예산 등 5 대 미래예산과 △지역사랑상품권 △청년 교통 3만원 패스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지원 △소상공인 지원 △전세사기 피해 구제 예산 등 5 대 생활예산을 각각 추진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김성주 의원은 정부 예산과 관련해 써야할 곳에 제대로 쓰는 것이 중요하다는 원칙을 환기하며, 원칙도 내실도 없는 윤석열 정부의 내년 예산안을 국회에서 바로잡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민주당에서 선정한 5 대 미래예산과 5 대 생활예산을 압축하는 키워드인 민생·지역·미래에 대해 "10 대 중점 예산 사업은 모두 민생을 지키고, 지역을 살리며, 미래로 향하는 원칙 아래 만들어졌다"고 밝히고 "돌봄·주거·교통 등 국민들이 가장 고통스럽고 힘들어하는 부담을 덜어주는 사업을 최우선으로 증액할 것"이라는 설명을 덧붙였다.

21대 국회 마지막 예산 정국의 방향을 밝힌 이번 민주당 기자간담회에는 김성주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 이개호 정책위의장, 강훈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가 참석했다. /김재훈 기자

도교육청 급식종사자 폐암검진 지원 근거 마련

장연국 도의원, 조례 대표발의

전라북도의회 장연국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6일 '전라북도교육청 급식종사자 폐암검진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도교육청 급식종사자 폐암검진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 수립, 폐암검진 주기 명시, 급식종사자 폐암검진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 조례안은 교육위원회 소속 전체 의원이 공동발의했고, 전라남도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제정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장연국 의원은 "전북에서 최근 급식종사자가 폐암으로 판정받거나 폐암이상소견을 받는 사례가 발생해 매우 우려되는 현실 속에서 급식종사자에게 폐암검진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돼 이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재훈 기자

민주 정읍고창지역위, 당원교육 진행

특강 나선 민주 정청래 최고위원 "탈당은 당 정체성 문제 지표"

더불어민주당 정읍·고창 지역위원회는 지난 2일 윤준병 지역위원장 주최로 당원교육을 진행했다. 이날 당원교육에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이 특강강사로 나섰고, 당원 500여명이 참여해 성황리에 교육을 마무리했다.

특강 강사로 나선 정청래 수석 최고위원은 당원의 역할과 의무에 대해 강의를 진행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2016년 20대 총선을 앞두고 영입된 김종인 대표의 셀프공천 희생양이 된 적이 있다며, 그 때의 아픈 기억을 덤덤히 이야기 하면서도 자신의 원칙에 절대 "탈당은 없다는 원칙"을 피력했다.

정 수석최고위원은 2016년 컷오프 당시 수많은 동료들이 정청래 컷오프 철회와 구명을 위해 필리버스터를 제안·진행하기도 했고, 많은 당원들이 항의 전화가 빗발쳐 중앙당사는 전화가 먹통이 되기도 했다. 온라인으로 입당했던 많은 당원들이 대거 탈당계를 제출하면서 홈페지이도 다운되기도 했지만 결국 재심청구도 기각됐었다.

정 최고위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의 결정에 따르며 민주당을 지켜왔고 지금의 정청래가 있다고 이야기 하면서 "개인의 유불리에 따라 탈당과 복당을 일삼은 일부 인사들은 정체성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라며 22대 총선 공천 가능성에 대해서 회의적인 시각"을 전달했다.

정 수석최고위원 특강 후 이어진 윤준병 위원장은 정당과 당원이 만들어가는 행복한 정읍·고창에 대해 강의를 진행했다. 윤 위원장은 정당은 "자신이 지지해준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담아내는 것"이라고 말하고, 당원들의 목소리를 담아내 정읍·고창의 묵은 현안 해결과 수많은 법안을 발의할 수 있었다며, 정당 역할의 핵심은 정읍·고창의 당원이라고 했다.

윤 위원장은 당원들의 의견을 모아 나랏일에 제대로 반영하는 그런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약속하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할 수 있는 생활인구나 관계인구 확보를 위해 4계절 체류형 관광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먹거리, 잘거리, 볼거리, 체험거리, 치유거리를 곳곳에서 만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마라톤 투쟁 도의원들, 전북인 역량 결집 앞장

12일째 마라톤 투쟁 나서… 오늘 총궐기 합류

경기도 수원 등에 비가 내린 가운데, 전북도의회 박정규 의원과 염영선 대변인, 권요안 의원과 서난이 의원이 빗속을 헤치며 마라톤 투쟁에 나서고 있다.

전북도의회 박정규(임실) 의원을 중심으로 출발한 새만금 정상화 마라톤 투쟁이 익산과 논산, 당진, 공주, 세종, 천안, 평택, 오산, 화성, 수원을 거쳐 6일 현재 안양을 지나 국회로 달려가고 있다.

지난달 26일부터 시작된 마라톤 투쟁은 이날 현재 12일째 진행 중이며, 국주영은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이 릴레이로 함께 뛰면서 새만금 사업 정상화를 전국에 알리고 있다. 마라톤에 참여한 의원들은 7일 오후 2시 국회 앞에서 열릴 전북인 총궐기대회에 합류할 계획이다.

특히, 지난 5일부터 6일 오전까지 경기도 수원과 의왕, 안양지역을 통과할 때는 시간당 20~40mm의 강한 비바람이 몰아쳤지만, 우의를 입은 의원들의 마라톤 투쟁은 멈추지 않았다.

이 구간은 염영선(정읍) 대변인, 서난이(전주9) 의원, 권요안(완주) 의원, 김성수(고창1) 의원이 박정규 의원과 함께 빗속을 헤치며 마라톤 투쟁으로 힘을 실어줬다.

또한 주말을 맞아 나들이 중인 시민들은 마라톤 중인 의원들에게 '힘내세요'라는 구호로 응원을 보내기도 했다.

박정규 의원과 염영선 의원 등은 "전주에서 서울 국회 앞까지 마라톤 투쟁을 강행하는 이유는 새만금 정상화와 전북 몫을 되찾기 위한 것"이라며 "7일 국회 앞 전북인 총궐기대회에 합류해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을 알리고 전북인의 자존심을 되찾겠다"고 밝혔다. /김재훈 기자

김제시의회, 11월 정례 의원간담회 개최

김제시의회(의장 김영자)는 지난 6일 의회 소회의실에서 11월 정례 의원간담회를 열어 조례안 4건, 기타안건 18건 등 총 22건의 안건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제274회 제2차 정례회 운영계획 및 기타 안건에 대해 보고 받았으며 심도 있는 의견 제시를 통해 활발한 간담회를 진행했다.

특히 주상현 의원은 교육문화과에 "문화예술 커뮤니티센터 건립 시 특정단체에 특혜가 주어지지 않도록 철저한 검토를 바란다"고 주문하였으며 황배연 의원과 최승선 의원, 이병철 의원은 "자매도시 및 우호도시와의 상호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또한 김주택 의원과 이정자 의원, 문순자 의원은 "의회 보고 시 신뢰도 있는 상세한 자료 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집행부에 상세 설명을 요구하였으며 양운엽 의원과 전수관 의원은 특수수소충전소 신축 보고 시 "위탁 계획의 철저한 업무 연찬이 필요하고, 대기업 등의 투자 계획을 확인 바란다"고 주문했다.

김영자 의장은 "오늘 간담회에서는 유독 활발한 의견 교류가 있었으며, 심도 있는 제안들이 많은 뜻깊은 간담회가 진행되었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기자